

정원상(부산상고 은사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정원상
2. 면담자: 강희영
3. 촬영자: 이대희
4. 구술일자: 2011년 9월 22일
5. 구술장소: 부산 수영구 구술자 자택
6. 구술분량: 06분 47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고교 음악선생님이 기억하는 제자 노무현

면담자 : 부산상업고등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교 때 음악을 가르치신 거죠?

구술자 : 그러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모두다 모여 있는데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가 앉아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륙(5~6)년 전이잖아요.¹⁾ 난 대통령이 무슨 말 하노(하는지), 그때가 삼십구(39)년 전 이야기입니다. 나도 완전히 잊어빠리고(잊어버리고) 있는데요. 인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. 나한테 맞은 얘기. 음악실에 누워 자다가. 노무현 대통령 학생시절에 음악실에 누워 잤어요. 그, 말이 될 소립니까. 막 쥐 박았어요. 그래 청와대에서 내한테 이리 쥐 박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 압니다. 그러면 왜 음악실에 와 그러고 잤는가, 난 몰랐잖아요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참 눈물 날 일입니다. 구포에서 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. 버스비가 없어서. 피곤하니까 자기 교실에서는 못 누(누워) 자잖아요. 점심시간을, 음악실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. 누 잤어요.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쥐박았는 거야. 그런 게 하나 있고.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미리 막 교향곡 같은 거 감상도 시키고 막 눈도 감기고 참 그야말로 그 부산상고 그 당시에 나온 애들부터 베토벤 ‘운명’ 이니 교향곡 뭐시니 좀 눈을 뗐지요.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(이) 청와대에서 여럿이 앞에서 말할 때 뭐라켓냐 하면은 ‘음악은 안 가르키고 매일 레코드 틀어놓고 (그랬다고). 음악이라면 노래 부르 거만(부르는 것만) 음악이지.’²⁾ 예? 그만치 시골에서 왔는데 다르잖아요.

그때(노 대통령 재학시절) 내 동생. 목사 하는 동생을 내가 인자 내가 있

1)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2003년 5월 8일 제31회 어버이날을 맞아 초·중·고 시절 은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. 구술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.

2) 당시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노 대통령의 농담을 전하고 있음.

으니 부산상고 들어왔지요. 근데 동생하고 같이 놀러왔어요.³⁾ 근데 동생한테 얘기 들으니까 ‘노무현이가 착실하고 때 묻지 않고 순수하고, 농촌에서 그 행님 밑에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돈 때문에(때문에) 이게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걸 안타깝다’ 요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. 그래 언젠가 오기만 함 와봐라.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(그랬는데) 우리 집에 내 동생 찾으러 왔지요. 왔는데 그때 내가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이 전체 아까 그 사진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 하는 말입니다.⁴⁾ 나도 깜짝 놀래요. 그때 내가 참 눈물이(웃음). 우리 기독교에서 나누는 거는 무한히 받는 거구나,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. 방에 들어가더만 내가 나와서 봉투를 주더라고요. 노 대통령 (말이). 나는 잊어 버렸는데. 그 돈이 얼마겠어요? 근데 그때 줄 때 ‘니가 인물이 될라면은 인물을 만나야 한다. 인물을 만날라 하면은 위인전을 읽고 고전을 읽어라’ 그래갖고 내가 주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부산에 참의원 선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?

면담자 : 예. 국회의원 선거요.

구술자 : 예. 국회의원. 그때도 내 동생한테 저 놈 어짜되든(어찌되든) 함 길러보자. 그러니까 저 하루 택시 운전하러 가는 게 만(10,000)원입니다, 그때. 그때 인자 (차를 쓰라고) 노 대통령 갖다 주고. 기도하고 갖다 주고 요거 하루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줬어요. 그래 동생이 초량에 어데 가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고 이라니까 그때 하는 노 대통령 말이 ‘느그 형이 나 구포에서 걸어오는 걸 아시고 한 달 분 버스비 주더라.’ 이것을 난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. 예? 그런 게 받은 사람은 안 잊어 뿐 거예요(안 잊어버린 거예요).

면담자 : 선생님, 대통령님이 고등학교 때는 성격이 좀 활발할 편이었나요?

구술자 : 점잖았지요, 뭐 활발했지만은. 시골에 있는, 있다가 부산상고 하면 굉장합니다. (들어오기) 어려워요. 아주 우수합니다. 전국적으로요. 근게 학창시절에도 너무 분에 넘치는 짓을 안 한 거지요.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걸 느끼는, 말하자면 항상 부족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을 못(못) 산다 하는 거 있었지요. 집이 빈한하다 하는 거. 그런 게 자기의 성장과정에 밑바닥에 무의식적으로 다 쌓여져있으니까, 노 대통령. 그래 자 기회가 왔비리니까(오니까) 저렇게 튀어 나갔비렸잖아(나가버렸잖아).(웃음) 그러니 노 대통령이요, 그건 다 안에 있는 그 정열과 욕구 이런 것들이

3) 노무현 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 정길상은 정원상 선생의 동생이다.

4) 각주1)에서 말한 청와대 오찬행사 사진을 지칭함.

막 속에서 타고 있을 때 나간 거지요. 그러니까 그렇게 그 코아퍼레이트 (Cooperate). 협동정신, 끌어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는 거. 아휴 사람이 웃음과 그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노 대통령이 그런 편이죠.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거 아니에요? 념(남)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민적으로 살았잖아요.(웃음) 고런 놈이에요. 항상 겸손하고 남의 비평 안 하고, 예. 항상 인사 같은 거 낮 어주고(낮추고). 그거는 말로 갖고는(말로 배워서) 불가능합니다. 가정 환경이 그리 똥버리야 되는 거야. 예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26. 경남 함양 출생

1973. 경희대학교대학원 작곡과 졸업

진주사범학교 강습과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

중등교사 자격 국가고시 합격 후 경남여중교, 부산상업고등학교 음악교사

1991. 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정년퇴임

1960년부터 1967년까지 부산상고 음악교사로 재임하던 중 3년간(1963~1966) 노무현 대통령을 가르쳤다. 교사와 학생으로서뿐 아니라 동생 정길상의 친구로서 인연도 가지고 있다. 2003년 5월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남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.